

서울서 만나는 '광주 오월 목판화-항쟁의 증언'



서울 나무아트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광주작가들의 5월 목판화 전시 모습.

5·18 40주년 기념전 '민주주의의 봄' 조진호·최상호 등 참여 작품 100여점 아카이브 자료도 전시



이강하 작 '오월-2'

목판화는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 어떤 장르보다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다. 역사의 구비마다 시대를 증언해온 광주의 목판화 작품들이 서울에서 선보여 눈길을 끈다. 광주의 오월목판화가 서울에서 대거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개막한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전 '민주주의의 봄' (7월6일까지)은 역대 광주비엔날레에서 '광주'를 소재로 작업한 작품들을 다시 소개한 기획전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진행한 이번 전시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대만·아르헨티나·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내년까지 열리는 'maytoDay' (메이투데이)의 서울 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 오월 목판화-항쟁의 증언'이 특별 섹션으로 초청돼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당초 재단은 서울 전시로 우테메타 바우어가 기획한 '민주주의의 봄'과 함께 '목판화 섹션'을 별도로 준비했다. 코로나 사태로 규모·일정 등이 변경되면서 '광주 지역 작가' 중심의 특별 섹션을 기획했고 아트선재센터 2층 전시공간과 인사동 나무아트(30일까지)에서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를 준비한 판화 전문가 김진하 큐레이터는 1980년~1990년대까지 제작된, '광주 오월' 관련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참여작가는 조진호·최상호·김진수·이상호·전정호·정희승

·김경주·김병하·이강하·김영만·한희원 등으로 모두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아트선재센터에서는 12점의 작품이, 나무아트에는 12명(팀)의 약 40여점이 전시돼 있다. 홍성담 작가의 오월 판화 연작은 '민주주의의 봄' 본 섹션에서 따로 만날 수 있다.

김 큐레이터는 "단일 사건에 10년 동안 쉬지 않고 몰입해온 광주 지역 목판화 작업은 5월 민주화현장에서의 체험, 저항, 기록, 증언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형상화해온 귀한 작업"이라며 "작가들은 자신과 이웃, 광주와 호남인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정희승 작 '포장마차에서'

maytoDay

7월 5일까지 서울 아트선재센터 30일까지 서울 나무아트

아트선재센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조진호 작가의 '오월의 소리'다. 1980년 6월 제작됐으나 5월의 그날에서 바로 열리지 않은 작품이라 강렬한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고(故) 이강하 화백의 판화 작품을 보는 것도 이색적이다. 회화 작품을 주로 그려온 이 화백의 판화 '오월-2'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서정적인 느낌을 전한다. 또 분노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이상호 작가의 '죽창가'와 전정호 작가의 '시민군', 최상호 작가의 '화려한 휴가 2'를 비롯해 김진수 작가의 '진혼곡'과 김영만의 '오월 무등에 자비의 달빛이' 등도 눈길을 끈다.

정희승 작가의 '포장마차에서'는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을 포착한 작품이며 김경주의 '망월'은 오월 가족의 슬픔을 강렬한 검은색으로 표현해 인상적이다. 그밖에 민중미술 작가로 활동할 당시 제작했던 한희원 작가의 '아리랑' 연작 등도 눈길을 끈다. 나무아트에서는 판화 작품과 함께 선전물 등 다양한 아카이브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열정의 남미

'아, 잉카! ...느끼다' 전 30일까지 진한미술관



WOMI 작 'TANGO'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정열적으로 탱고를 추는 남녀, 수많은 유적이 어우러진 신비스러운 마추픽추, 한 없이 맑은 티티카카 호수, 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리우 데 자네이루의 예수상(코르코바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길 꿈꾸는 남미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5·18 기록문화관 옆에 자리한 진한미술관(광주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4)이 오는 30일까지 '아, 잉카! 남미의 숨결을 느끼다'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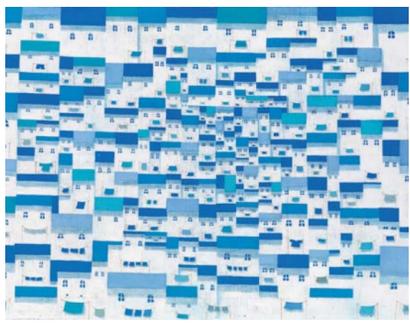
전시에서 나온 작품들은 김상덕 진한미술관장이 지난해 다녀온 남미 여행에서 수집한 작품들이다. 칠레,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을 둘러본 김 관장은 다채로운 색감과 자연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남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30여점을 구입했고,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정년 시절부터 많은 나라를 여행해온 김 관장은 당시 수집했던 각 지역의 작품을 모아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리우, 야네, 차베스 등 남미 작가들이 선보이는 전시작들은 무엇보다 남미 특유의 원시적이고 화려한 색감이 돋보인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풍경과 함께 세련된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래된 성곽 탑 등은 남미의 정서를 고스란히 느끼게 해준다. 또 농사 짓고 꽃을 가꾸는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모습과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습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진다. 신동원 작가의 '리우 데 자네이루'도 눈길을 끈다.

작품은 수채화가 대부분이며 유화 작품도 일부 선보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차분 작 '어서오세요 II'

전남 작가 작품 경매전 미리 만나세요

전남문화관광재단-서울옥션, 8일까지 '제로베이스 in 전남' 전

전남문화관광재단은 국내 최대 미술품경매 회사인 서울옥션과 손잡고 전남 작가들의 미술 작품 온라인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 역량이 있는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계획이다.

재단은 서울옥션 온라인경매 전 도민들이 작품작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전남도청

러리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제로베이스 in 전남' 전 전시회를 갖는다. 또 코로나19로 전시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장감 있는 전시 관람을 제공하기 위해 재단 남도사이버갤러리 홈페이지에 VR 전시관도 운영한다.

경매 참가를 위해 서울옥션 스페셜리스트들이 선정한 전남 미술작가는 고차분·김미숙·김성걸·김옥진·김우성·윤연우·이태화·서지영 작가 등

모두 8명으로 작품 80점을 전시한다.

이번 사전 전시회 후 재단과 서울옥션은 12일부터 7일 동안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2차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경매를 진행하며, 18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경매를 마감한다.

'제로베이스'는 많은 사람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미술 작품 구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온라인 경매로 미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인 만큼 작품 경매 시작가는 0원부터 시작한다. 누구나 작품 경매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옥션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권장.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부산 엑스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